

불보살이 상주하는

북한산 이야기 ③ 시자봉



원효와 의상의 은혜 갚던 새가 바위로...

시자봉은 염초봉과 백운대 사이에 있는 봉우리로, 시자가 사모를 쓰고 백운대를 향하고 있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다.

저는 시자봉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나구요? 궁금하시다면 제 소개를 좀 올리게요.

저는 원래 경기도 남양주 출신의 작은 새였답니다. 참, 제가 살던 때는 우리 동네 이름이 남양만이 아니라 당항성이라고 불렀을 때였어요.

원효와 의상의 보살핌으로 살아난 새 은혜 갚으며 시봉하다 성불해

셨어요. 나는 어리기도 했지만 그 돌이 제 다리를 스치면서 생긴 상처가 너무 아파서 엄마의 죽음이 그렇게 슬프진 않았어요.

세월이 가면서 두 분 스님의 수행력을 보고 저도 함께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스님들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면 나도 깨우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어느 아침, 자고 일어났는데 글썽 내가 바위가 되어있지 않았겠어요? 하늘을 날 때 보다 더 크고 깊은 자유가 느껴졌어요.

로, 다른 한 분은 먼 당나라로 가신다는 거였어요. 어느 분을 따라가야 하나 망설이다가 다리도 완전히 낫지 않았기에 먼 곳은 무리가 될 것 같아 저는 신라로 가시는 원효 스님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왜 제 얼굴이 스님 쪽이 아니라 백운대 쪽을 보고 있나구요?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 두 분 모두 성격이 원체 깔끔하시거든요.

의상 스님께서 당나라에서 돌아와 이곳으로 오실 때는 제가 그 분 머리위에서 길을 안내해 드리기도 했어요.

세월이 가면서 두 분 스님의 수행력을 보고 저도 함께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스님들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면 나도 깨우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어느 아침, 자고 일어났는데 글썽 내가 바위가 되어있지 않았겠어요? 하늘을 날 때 보다 더 크고 깊은 자유가 느껴졌어요.

<애기꾼> 전현서



신중일 기자 일본 관서 교찰을 가다

③ 교토 광통사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Karl Jaspers, 1883~1969)는 일본을 방문해 교토의 고찰인 광통사(廣隆寺)에 들르게 된다.

“이것은 지상의 모든 시간적인 것, 속박을 넘어 달관한 인간 존재의 가장 정화된, 가장 원만한, 가장 영원한 모습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안의 서양 철학자마저도 절창을 하게 만든 문화재, 바로 일본 국보 1호로 한국에 잘 알려진 광통사 ‘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다.

일본 광통사 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 한국의 도래된 양식임을 증명하는 것이 불상의 재질이다.

야사(野史)처럼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20세기 초 광통사 미륵보살반가사유상은 보존 및 수리에 들어가는 데 그 과정에서 일본 불교미술을 공부하는 한 여학생이 실수로 목조반가사유상의 손가락을 부러뜨리게 된다.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반가사유상과 쌍둥이처럼 남아 있는 만큼 일본 광통사 미륵보살반가사유상도 문화재적, 미적 가치가 매우 높다.

교토 제83호 금동미륵반가사유상과 쌍둥이처럼 남아 있는 만큼 일본 광통사 미륵보살반가사유상도 문화재적, 미적 가치가 매우 높다.

미학 연구자인 명법 스님 역시 본지의 기획 연재 칼럼 ‘불교와 미학’에서 미륵반가사유상에 대해 “동양적인 얼굴에 위로 살짝 치켜 올라간 눈, 두 눈을 반쯤 감고 입가에 살짝 미소를 머금은 이 보살상은 로망의 ‘생각하는 사람’처럼 고뇌하는 표정도, 불안정 자세도 없다.

이 같은 곡선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불상이 한국과 일본 양국에 나란히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옛 선현들의 불심을 그대로 엿볼 수 있다.

사실 광통사 창건도 한국과 관련이 깊다. <일본 서기>에 따르면 고구려와 백제 승려를 스승으로 모셨던 쇼토쿠(聖德)태자가 “고귀한 불상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 이 불상을 모실 자가 없는가”라고 물었고, 신라에

한국산 적송으로 만들어진 일본 국보 ‘미륵반가사유상’ 철학자 야스퍼스도 극찬한 한일 불교 교류의 정점

서 건너 온 하다노 카와카스(秦河勝)가 자진해 사찰을 창건할 것을 청했다. 이후 하다노 카와카스는 스이코 천황 11년(603년) 광통사의 전신인 봉강사(蜂岡寺)를 창건해 이를 모셨다고 전해진다.

현재 광통사는 진언종의 소속 사찰로 교토 지방에서 가장 오래됐으며, 쇼토쿠 태자가 설립한 7대 사찰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이다.

특히 광통사의 ‘강당’은 1165년 건립된 것으로 교토의 목조 건축물 중 최고(最古)의 역사를 자랑한다.

강당 뒤쪽에는 대웅전에 해당하는 조구오인(上宮王院)이 위치하고 있다. 이곳 본존상은 33세 무렵의 쇼토쿠 태자상이다.



일본국보1호로 잘 알려진 ‘목조미륵반가사유상’(사진 위)과 광통사 대웅전(사진 아래). 광통사에서는 일본 아스카시대의 정수를 만날 수 있다.

백미이다. 일본 문화 가운데에서도 최고로 손꼽히는 아스카 문화에는 한반도의 옛 선현들의 발자취가 아로 새겨져 있다.

이 원고는 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프로그램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현대불교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싼이자를 물고 계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약의적인 파피앵워 담보 가능함. 가입시 필요자료: 사찰등록증, 각 전각의 건축(중,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천비록 (하늘·땅·사람의 비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오직 이때 이시기에만 밝혀지는 하늘·땅·사람의 비밀 天秘錄!”

새로운 천년 길상의 향기. 대한불교조계종 길상사. 주지 만제 혜수 사부대중 일동. [부설] 삼계선원 불교대학 법화경반 우담바라합창단 성현덕회.